

경영 부담 소상공인·중소에 212억 금융 지원

중랑구, 4개 기관과 특별신용보증 융자 업무협약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최근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경영에 부담을 겪는 지역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구와 4개 은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총 17억원을 출연하며,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특별보증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출연금은 구 1억원, 우리는

행 10억원, 국민은행 3억원, 하나은행 2억원, 신한은행 1억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79억원 규모로 시행된 특별신용보증융자보다 37억5000만원 늘어난 규모다. 특별보증 융자지원 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연 2~3%대 변동

금리로, 기존 제다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년 거치 후 3~4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앙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신용조회와 사업장 확인,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 승인 여부 결정된다. 보증이 승인되면 협약 은행을 통해 융자가 집행되며, 융자 한도는 서울신용보증

재단과 구가 수시로 공유해 투명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이번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 협약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민·관·금융이 관과와 협력해 강화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원, 서울-전국 평균 상회

금원구(구청장 유성훈)는 202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크게 초과했다고 밝혔다.

22일 구에 따르면 2025 금융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46.23%로, 당초 목표였던 37.2%보다 9%p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서울시 평균 수검률 41.03%와 전국 평균 수검률 45.88%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금원구의 수검률은 1년 전인 2024년 38.2%에서 크게 상승했다.

이와 같은 수검률 상승은 구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참여 독려와 홍보를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

의료취약계층 건강검진 수검률 46.2%

질환을 조기 발견해 치료와 관리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는 올해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참여를 독려한다. 검진 대상자는 20세부터 64세(1962~2006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흡수년도 출생자다.

검진 항목은 신체계측, 시력·청력 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를 비롯해 공복혈당 및 당 기능을 확인하는 혈액검사 및 구강검진 등이 포함된다. 또한 상해나 연골에 따라 이상지질혈증 검사, 골다공증(여성), 유방검사 등 맞춤형 항목이 추가로 제공되어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다.

검진 비용은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이며, 전국의 일반건강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검진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검진기관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지원

영등포구, 27일까지 신청 접수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노후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창고·단열·난방·방수 등 주택 성능개선 ▲내부 단차 제거, 위생기구 교체 등 ▲소화기·화재감지기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이 되는 건물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취약가구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상상화면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지구(신길동 268-4번지 일대 등)내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다. 저층주택은 단독·다가구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을 말한다.

지원금액은 주거 취약가구의 경우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며, 반지하 주택은 최대 600만원, 양상화면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내 주택은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 포함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까지 주거 취약가구에 포함시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주거 취약가구를 위한 지원내용도 강화했다. 집수리 비용의 일부는 선지급하고, 현재 주택이 비어 있더라도 취약가구가 입주예정이라면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지원한다.

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무허가 또는 주택 용도가 아닌 건축물,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내부공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영등포구청 재건축사업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양식은 구청 홈페이지 우리구소식 게시판을 '집수리닷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준 기자 yyj@sinimilbo.co.kr



고용 생태계 활성화 협약
영등포구가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과 기업 성장과 고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은 협약식에 참석한 최호권 구청장(왼쪽)이 김순재 지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관악구, 8000만원 투입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 최대 80% 지급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연이은 물가 상승과 실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에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가동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총 8000만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저금리로 지원해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을 돕는다. 자금 소진 시까지 총 소요금액의 80%까지 지원하며, 영업주 수

리·개조나 살비 구입 등 '시설 개선'에는 최대 8000만원, '화장실 개선'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융자 지원 대상은 지역내 '식품위생'상 영업등록·신고에 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음료제조소 등이다. 단, 후방 또는 폐업한 업소, 신규 영업등록·신고(지위 승계 포함)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용·단란점점의 경우 화장실 개선 자금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2%대의 저금리를 적용하고, 식품점개업소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화장실 개선 자금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영업주는 융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관악구 보건소 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소규모 일반음식점 내 노후된 주방 환기시설 개선 비용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인 소규모 업소로, 영업 신청일(지위승계 포함)로부터 1년 이상 지나야 한다.

동작구, 서울시 최초 청년 600명 1인가구에 냉·난방비

내달 10일까지 신청 접수

동작구(구청장 박인하)는 지역내 청년층의 거주비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을 돕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청년 1인가구 냉·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만 19세~39세) 1인가구 6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일시금 10만원을 지

급한다.

해당 사업은 구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그 중 ▲공공기관 체재자 ▲전세사기 피해자 ▲실직자 ▲수해 등 자연재해 피해자 등 생활취약을 겪고 있는 청년 1인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 인원이 모집 규모를 초과 할 경우 우선 순위 대상자를 먼저 선정할 후 일반 청년 1인가구 신청은 무작위 추첨으로 신청한다. 신청은 오는 4월10일까지 구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박인하 구청장은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홀로살기를 하는 청년들에게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번 지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우리 구격양이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yyj@sinimilbo.co.kr

간추린 뉴스



상당층 심터 정월 공복
마포구는 지난 18일 상당동 1749 일대에 조성된 '상당층 심터 정월 공복식'을 개최했다. '상당층 심터 정월'은 방치됐던 공공청사 유휴부지를 정비해 조성된 주민 휴식공간이다. 사진은 박경수 구청장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마포구, 25일부터 5회 재개발·재건축 교육

마포구(구청장 박경수)는 지역내 정비사업 조합과 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마포구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오는 25일부터 4월29일까지 총 5회차에 걸쳐 개최한다.

이에 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전과정을 단계별로 폭넓게 담고,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자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교육은 오후 6시30분~8시30분,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각 강의가 열리는 25일에는 정비사업의 개념과 시행체계, 정비구역 지정 등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을 보낸다.

강의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신한건설, 에이치엔씨건설 등 정비사업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예정이다.

강의는 화요일 약 100명 규모의 수강인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정비사업 조합 임직원,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민준 기자 mmh@sinimilbo.co.kr

광진구, 이달까지 청년 취·창업 프로 참여 모집

광진구(구청장 김경희)가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광진구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참여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18~39세 구주민 청년이며,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복원이탈청년, 기술기산공제 피해 청년, 지역특화청년 등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1인·장기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단기 과정은 4월1일부터 매주 수요일 5주간, 장기 과정은 오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25주간 운영된다.

프로그램 이수시 과정에 따라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250만 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장기 프로그램을 이수 후 취업·창업·구직활동시 최대 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영준 기자 yyj@sinimilbo.co.kr

종로구, 쪽방 주민 지원... 4대 분야 12개 프로 운영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쪽방 주민을 위한 건강·문화·교육·안전 4대 분야 통합지원 프로그램 '2026년 지·덕·체·덕'하기 채용 통령'을 추진한다.

구는 신체 회복·정서 안정·자립 역량·생활 안전을 아우르는 통합 돌봄 체계를 마련하고 ▲건강(體) ▲문화(德) ▲교육(德) ▲안전 4대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체력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겨냥한 '건강' 영역에서는 정기 헬스인지를 비롯해 건강관리 교육, 불임 교실, 한방 치료·상담을 운영한다. 정서 돌봄을 위한 '문화' 영역에서는 춤은 실내에서 벗어나 자연과 예술을 경험하는 실용형·아우타리를 탐방을 신설한다. 계절별 식재료 해안 생채를 경험하며 심리적 활기를 도모하고, 일상 속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지원한다. '안전' 영역에서는 낡고 오래된 건물에 빠르게 들어선 쪽방 특유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실질적 재난 대응 능력을 키우는 안전 훈련을 실시한다.

이영준 기자 yyj@sinimilbo.co.kr

송파구, 공식 메시지 인증 'RCS 안심문자' 서비스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가짜 문자로 인한 피해를 막고, 주민이 안심하고 행정 안내를 받도록 RCS(Rich Content Services) 인증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RCS(Rich Content Services)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의 국제 표준 메시지 규격을 적용한 서비스이다. 통신사 기반 인증을 통해 발신자를 확인할 수 있어 일반 문

자보다 신뢰도가 높다. 특히 이미지, 전용 버튼 등을 사용해 문자메시지에서도 발신자 정보와 프로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이제 송파구의 안심문자를 받으면 화면에 구 로고와 기관 명칭이 함께 나타난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한 파인텍 방패 모양의 안심 마크와 '확인된 발신번호' 문구가 표시돼 별도 확인 절차 없이 공식 문자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이영준 기자 yyj@sinimilbo.co.kr

도봉구,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 개발 협약

도봉구(구청장 오연석)는 최근 지역 소상공인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영 환경을 보다 정확하고 파악하고, 현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상권·인구·매출·임대료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도봉구 상권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지역 상권 특성에 맞는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오연석 구청장은 "빅데이터 기반 상권 분석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보다 정확하고 파악하고, 현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민준 기자 mmh@sinimilbo.co.kr

서초구 '삶의 마지막 결정 권리 보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운영 재개

서초구(구청장 정은수)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맞이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운영을 재개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결정제도는 향후 임종 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할 수 있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기로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등록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만 19세 이상 성인인면 누구나 연명의료 중단 및 연명의료(호소스피드) 병동 이용의사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약제로 운영된다. 등록을 희망하는 주민은 방문 전 전화로 예약 일자를 확정해 뒤 신분증을 지참해 서초구보건소를 방문하면 전문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등록과 관련된 문의 및 전화 예약은 서초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상담실로 하면 된다.

이영준 기자 yyj@sinimilbo.co.kr

이달까지 보라색 '카페포포' 운영

서대문구, 외국인 방문객 유치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현)가 글로벌 관광 명소인 '카페포포'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대적인 특화 운영에 나선다.

특히 이번 기간 중 현대백화점 시즌즈점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을 지역 상권으로 유도하는 연계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구는 오는 31일까지 카페포포 및 홍대주점 복합문화센터 일대에서 보라색을 테마로 특화 메뉴를 판매하고 홍대주점과 배영으로 보라빛 포토존을 운영한다.

이번 운영 계획의 핵심은 K-POP 공연 관련 방문 외국인들의 취향을 저격할 전용 콘서트다. 타로를 활용한 '타로 바블', '블루메리 에이드' 등 보라빛 디저트를 선보이며 전용 컵홀더와 팔레

도 보라색을 사용해 시각적 즐거움을 더하고 글로벌 팬층을 겨냥한다. 시각적 임팩트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간 조성도 이뤄진다.

이성현 구청장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K-POP의 상징적 공간에 카페포포가 테마로 특화 메뉴를 판매하고 홍대주점과 배영으로 보라빛 포토존을 운영한다. 이번 운영 계획의 핵심은 K-POP 공연 관련 방문 외국인들의 취향을 저격할 전용 콘서트다. 타로를 활용한 '타로 바블', '블루메리 에이드' 등 보라빛 디저트를 선보이며 전용 컵홀더와 팔레

이영준 기자 yyj@sinimilbo.co.kr